

2019. 1. 1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

기획조정국장

이경아

719-6089

홍보·대외협력팀장

황미연

719-6097

담당자

김지현

719-6423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3쪽

관련홈페이지

<http://smile.seoul.kr>

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나눔 옷장 통해 어르신들에 겨울옷 기부

- 16일간 시평생교육진흥원·모두의학교·시민대학에 ‘나눔 옷장’ (5.~20.) 설치
- 시 평생교육기관 임직원과 이용 시민들 점퍼, 목도리 등 겨울철 의류 150여 점 기부
- 새해 희망찬 삶을 위한 서울 전역의 평생학습 시설·프로그램 정보 함께 전달

- ☐ 서울시가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임직원과 시민들의 코트, 점퍼, 목도리 등 겨울용 의류 150여 점을 수집해 기부활동을 벌였다. 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▲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(마포구) ▲모두의 학교(금천구) ▲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(종로구) 등에 ‘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’을 설치하고 의류를 모았다.
- ‘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회공헌 프로젝트다. 단순히 안 입는 옷을 모아 전달하는 기부활동을 넘어 참여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수집된 의류를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.

- 올해 처음으로 ‘나눔 옷장’을 설치한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은 블로그, SNS, 웹진 등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기부 동참을 독려했으며, 지난 16일간(5일~20일) 수집된 의류 150여 점을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직접 분류하고 포장하도록 했다.
- 포장된 의류를 전달하며 〈서울은 학교다〉라는 문구가 새겨진 연하장을 제작해 어르신들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서울 전역의 평생학습 정보지 등을 함께 전달했다. 이번 기회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가까이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2019년 새해를 희망차게 계획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넣었다.
- 〈서울은 학교다〉는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배우는 곳, 삶과 배움의 경계가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캠페인이다.
-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“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”며 “배움은 희망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누구나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것. 배움을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, 그리고 내일을 경험하시기 바란다.”고 말했다.
- 한편,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배식 봉사,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형 제작·기부 등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.

붙임 :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‘나눔 옷장’ 관련 사진 8매. 끝.

